우리시대 참스승

포천일고등학교 교장 이 광 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行政學 과목 필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학력체제가 잘못되어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젼이 없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고등학교에서 행정학을 교육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에 입학해야 행정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력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포천일고등학교 이광호(61) 교장은“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주자영농고의 경우 5년제로 학제를 바꿔 졸업 후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학제를 개선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니면 고등학교에서도 행정학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되고 진실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교사가 되었다는 이 교장은 1973년 평택 안일여종고에서 처음으로 교직에 입문했다. 상업 과목을 담당하는 이 교장은 수원 수성고를 거쳐 1978년부터 1984년까지 포천여종고, 1984년부터 포천실고에 근무하다가 1997년 교감으로 승진해 부천 중흥고에 부임한 후 2000년9월 내촌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가 2003년9월1일 포천일고등학교로 부임했다.

실력향상 우수대학 進學위해 최선의 노력

소흘읍 이곡초등학교, 포천중학교, 포천고등학교,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 교장은 지금까지 30여년의 교직생활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학생들을 특별지도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라며 상업계의 경우 경진대회에 참가해 우승하는 경우을 말한다.

올해부터 ‘포천종합고등학교’를 ‘포천일고등학교’로 변경한 것은 대학에서도 실업계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포천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이처럼 교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글 ‘일’이 아닌 아라비아 숫자 ‘1’로 교명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다.

이 교장은 ‘학행일치(學行一致)’을 교육철학으로 삼아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사회나 가정에서도 실천하는 학생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해 이 교장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교육을 더욱 강하게 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교육에 들어오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한다.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교육전문가가 만들지 않고 일반인들의 상식수준에서 입안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혼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정희 정권 이전에는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삼았다가 박정희 정권때는 ‘근면, 자조, 협동’을 교육이념으로 하는 등 정권이 될때마다 교육이념이 달라 일선교사들이 혼동하고 있다. 근본을 가르치는 교육, 마디마디 연결하는 교육을 통해 넝쿨처럼 이어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 교장은 포천출신 교장으로서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가정과 학교와의 연계성, 지역사회의 유대강화, 학교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교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 학교상은 ‘敬上愛下’(경상애하,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한다), 교사상은 ‘敎學相長’(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발전한다), 학생상은 ‘學行一致’(학행일치, 배운 것을 복습하고 실천한다)를 경영철학으로 삼아 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이 교장은 현재 포천일고등학교는 학력향상을 위해 학생편의 시설과 교사연구시설의 구축과 교실이 13개 정도 부족한 실정으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외적 화려함 보다는 내실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 교장은 지역의 중심학교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포천시민의 애정과 사랑의 지원체계를 부탁하기도 한다.

남은 임기 동안 이 교장은 포천일고등학교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우수한 대학에 학생을 진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총동문회는 물론 포천시민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보다는 남이 알아줄때까지 묵묵히 노력한다’를 생활신조로 올초 맡게된 포천교원연합회장으로서 교육계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친구와 이웃들의 모범학생에게 장학금 수여식

홈시스마트 포천점 귀뚜라미문화재단 장학금 전달

지난 8일 귀뚜라미 홈시스마트 포천점에서 귀뚜라미 2006년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됐다.(사진은 안애경 대표이사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부모님과 선생님을 존경하고 정직과 성실한 생활자세로 많은 친구와 이웃들로부터 모범 학생으로 추천되었기에 귀뚜라미 2006년도 장학생으로 맞아들이면서 본 증서를 드립니다.”

지난 8일 오후2시 포천시 자작동 5-10번지 귀뚜라미 홈시스마트 포천점에서 귀뚜라미 2006년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이날 전달식은 안애경 귀꾸라미 홈시스마트 포천점 대표이사가 전달했으며 인사말을 통해 “평소 모범학생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한 장학생이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훌륭한 사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금은 모두 11명에게 전달했으며 중학생에게는 5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70만원을 전달했다. 다음은 장학금 수혜자 명단이다.

▶최정걸(포천중학교)▶이설희(포천고등학교)▶이유정(영북종합고등학교)▶강만수(동남고등학교)▶기수연(영중중학교)▶목한나(동남중학교)▶박한덕(갈월중학교)▶이한울(갈월중학교)▶박경은(신곡중학교)▶김현아(포천여자중학교)▶신우석(관인중학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한국걸스카우트 포천지구연합회 창립기념식

한국걸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포천지구연합회는 지난 5일 오후3시 송우초등학교 강당에서 변진수 경기도포천교육장과 걸스카우트 학생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걸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포천지구연합회(회장 강영숙) 창립기념식이 4월5일 오후3시 송우초등학교 강당에서 변진수 경기도포천교육장과 걸스카우트 학생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창립된 포천지구연합회는 총15개대 513명으로 구성됐으며 진달래대 12개학교 334명, 소년대 1개학교 45명, 연장대 2개교 61명, 지도자 73명으로 조직됐다.

이날 창립식은 개식사와 국민의례, 선서제창, 경과보고, 승인장 및 위촉장 수여, 지구연합회기 전달, 회장인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강영숙 포천지구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방 이듬해에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라는 시대의 소명을 안고 출발한 한국걸스카우트 운동이 이제 60년이라는 대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포천지역 걸스카우트의 푸른 싹을 이제 막 뿌렸다”며“지금은 작고 여리기만 하지만 여러분들의 보살핌과 관심속에서 점점 자라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키워내 그것으로 포천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진수 경기도포천교육장은 축사를 통해 “학기초에 올해 노력중점으로 초·중·고교 교장선생님들께 학력향상, 청소년단체 봉사활동, 1교과씩 우수학교로 육성 등을 부탁드렸는데 오늘 송우초등학교 강영숙 교장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청소년단체 봉사활동을 실천하신 것에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밝히고 “걸스카우트 육성을 통해 여성의 바른 인성을 기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으로 사회지도자로 육성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걸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포천지구연합회는 2006년 사업계획으로 지도자 양성 및 연수사업과 대원활동 및 훈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임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장 강영숙▶부회장 이혜경▶지구이사 권영분▶지구이사 정영희▶지구이사 현세숙▶지구이사 태민자▶지구이사 우상분▶지구이사 조문순▶지구이사 최복실▶지구인사 문은주▶지구이사 조이택▶지구이사 김현희▶대장회장 박재현(신북초)▶대장부회장 김애주(동남중)▶사무장 유지영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교사 탐구 46

포천노곡초등학교 정보교육부장 고 은 정

“교사로 근무하신 아버지가 알려 주신 수학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몰입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포천노곡초등학교 고은정(26) 교사를 만났다.

2004년4월21일 포천노곡초등학교에 교사로 첫 부임한 고은정 교사는 남양주시 퇴계원초등학교, 퇴계원중학교, 동화고등학교, 춘천교육대학교를 졸업했다.

교사로 입문한 후 지난 3년 동안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이 재미있고 신이 나고 열정적으로 노력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몰입’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몰입의 기쁨을 알게 된 아이들은 모든 분야에서 향상되고 있다.

몰입을 위해 고 교사는 지난해 수업실기대회에서 ‘동화 텍스트 활용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연구하여 아이들에게 수업동기 유발은 물론 아동의 창의력 사고력을 촉진시키는 매체로 활용하도록 했다.

고 교사는 기존의 명작동화, 창작동화, TV동화, 애니매이션 등의 다양한 동화를 수업소재로 활용 및 다양한 동화 감상 프로그램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아동에게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개성 있고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사회구성원으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 교사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업도 중요하지만 인성지도 교육을 위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리코더’를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시작했다. 각자 연주실력향상은 물론 함께 연주할 수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연주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처음에는 악보를 읽는 연습과 리코더 부는 텅잉을 교육했으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른 호흡과 주법을 익혀 어려운 곡, 복잡한 곡도 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운지법을 익히고 간단한 악보를 연주하는 시간을 가진 후, 테스트를 하여 스티커 붙이기 활동을 하였다. 스티커 붙이기 활동은 동기유발의 효과를 주었고, 아이들의 기능이 향상됨을 느낄 수 있었다. 리코더부에 들어가서 다양한 종류의 리코더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소프라니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5종류의 악기가 학교에 구비되어 있었고, 색다른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큰 흥미를 느끼며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마음은 따뜻하게, 행동은 올바르게, 공부는 재미있게, 건강한 3학년”을 급훈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고 교사는 2004년 포천교육청 소속 댄스스포츠동아리에서 댄스스포츠를 익혀 올 초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 교육에 나서고 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와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보여주는 파격적인 율동은 아이들에게 자신감은 물론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 정보교육부장직을 맡아 컴퓨터 관련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에 컴퓨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관련업무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있다. 처음에 정보부장직이 낯설었지만 작동하지 않던 컴퓨터에 손을 대니 작동이 가능해졌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아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자왕, 정보검색왕 등 정보통신행사를 주최하고 정보통신예절, 인터넷 중독에 관한 특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화 텍스트 활용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 신장

전문공연예술단체의 수준높은 공연 감상 희망

기독교 신자로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빌립보서4장13절)를 생활신조로 삼아 일을 할 때 매우 즐겁게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교사는 작은 학교에 대한 우리사회의 배려가 아쉽다고 한다. 소규모학교지원을 위해 무료공연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학원을 가기 위해서도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으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관람료는 물론이고 교통비까지 부담이 되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연단체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공연을 해 준다면 이곳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같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외부지원이 절실하다.

물론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지만 학생수도 적고 서울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기꺼이 방문하려는 공연단체가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교육도 마찬가지다. 도심에 몇백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70여명의 학생은 소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속상하다고 지적한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각 과목의 교육지원단이 한 교과당 10명씩 구성되어 있다. 고 교사는 국어교과교육지원단에 소속돼 있다. 국어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언어활동을 통해 언어사용 과정상의 기능을 갖추도록 돕는 일이며 언어사용 기능을 신장시킴으로써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실질적인 교육지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겪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보완수정하여 보다 완벽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고 교사의 모습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윤종성의 미국어 따라하기

8. 샘플 몇 개를 보시겠습니까?

Do you want to have a look some samples?

두유워너해버룩 썸쌤플스?

아, 그럼요.

Sure, why not?

슈어, 와이 낫?

9. 우리가 지난 주에 거기가 있었어야 하는데.

We should have been there last week.

우이슛해브곤데어 래스윅

맞습니다.

you' re right.

유아롸잇

10. 이거 하나 사 주실래요?

Can you get this for me?

캔유겟디스원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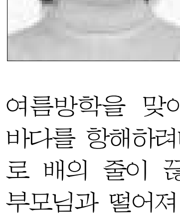
미안해요, 갖고 있는 돈이 없는데요.

Sorry, I' ve got no money with me right now.

문의 : 윤 종 성

(017-723-4977)colyoon@nate.com

‘15소년 표류기’를 읽고



김 연 수 학생명예기자(동남중 2년)

15명의 뉴질랜드 ‘체어맨’이라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6주동안 바다를 항해하려다 자크의 실수로 배의 줄이 끊어져 아이들은 부모님과 떨어져 무인도에 살게 되었다.

서로 협동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며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친구들끼리,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협동심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서로 돕는다면 멋진 모험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책에서 국적이 다른 친구들끼리 작은 다툼과 시기로 드니팬이 브리앙을 미워한 것처럼 나도 만약 내 주위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 먼저 사과하고 친해졌으면 한다.

15명의 소년들이 무인도에서 슬기롭게 생활하고 용기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에 풍랑으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서 지낸다는 내용과도 같다.

내가 만약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남게 된다면 많은 식량과 무기와 총, 지도와 나침반을 가져가서 책에서의 고든과 브리앙처럼 슬기롭게 무인도를 빠져 나올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한 15명 소년들의 용기와 책임감, 협동심과 더불어 2년동안 떨어져 있던 아이들의 가족애를 본받고 싶다.

15명의 소년들에게서 도덕심, 책임감, 자신감, 리더쉽, 모험심,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다.